

##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過去와 展望—

金 圭 煥

서울대 신문연구소장

韓國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심은 1950년대 後半에 소개되기 始作하였으나 1960년대 초 이전에는 주로 新聞에 대한 歷史的 考察과 政治的 權力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新聞의 위치에 관한 規範론적 접근과 저널리즘적 問題提起에 그쳤다.

이 段階는 「媒體의 傳達現象 및 社會의 役割을 증시하는 입장이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研究史의 發展段階로 보아 레이먼드 닉슨(Raymond Nixon)이 지적한 概念形成과 摸索의 段階에 해당된다 하겠다.

1963년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機關으로 서울大學校에 新聞研究所가 設立되어 다음해부터 內容分析이나 社會調査에 의한 研究論文이 나와 이른바 實證的 또는 經驗的 研究風土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커뮤니케이션科學의 시조라 하겠다.

회고컨대 1960년대 초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 出發期の 과제는 隣接科學으로부터 보다 많은 參加를 받아들이는 研究의 綜合성과 學際的 接近方式(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確立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經驗的 研究方法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 理論의 體系化였다.

이 初期段階가 한층 더 發達하여 韓國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學問의 研究가 본격화한 것은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를 모체로 1968년에 新聞大學院이 설치되었을 때였다. 그와 아울러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가 다시 활기를 띠고 1970년도 부터 많은 碩士論文이 발표되는 가운데 經驗的 研究가 韓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 가운데에 定着하게 되었다.

1959년이래 부진상태에 있던 韓國新聞學會가 1968년부터 活動을 재개하여 이때부터 커뮤니케이션 研究는 새로운 發展期를 맞이하여 1970년대 이후 本格的인 成長期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어서 美國에서 實證的 學風을 배워온 학자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精緻·細練된 實證的 研究方法論이 移植되었다.

方法論의 精練화와 더불어 研究對象의 擴大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의 프로젝트들은 1960년대에는 新聞의 內容分析이 주가 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受容者研究가 활발하여 커뮤니케이터와의 相互作用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現實的 問題把握이나 現象記述의 研究가 계속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된 학문(discipline)으로서 定着시키기 위한 理論과 方法論의 開發이 추진되었다. 그런 意味에서 1970년

대 前半은 理論形成期라 할 시기로 Hovland, L, Festinger 등의 태도변화이론이 도입되어 Lazarsfeld의 社會學的 理論과 함께 커뮤니케이션理論의 兩大 支柱가 되었다. 研究方法로서는 內容分析이나 社會調查가 여전히 優位를 점하였으나 實驗室研究(Lab. Studies)가 새로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韓國의 커뮤니케이션學은 단순히 “매스 미디어에 관한 知識”이 아니라 社會的 傳達現象을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行動科學的 社會科學으로의 性向을 띠게 되었다.

現下 國內에는 韓國新聞學會 所屬으로 110名の 研究者가 있고 그 중 70名은 現職教授, 나머지는 대부분 매스미디어와 弘報分野 종사자이다. 넓은 意味의 韓國 커뮤니케이션研究分野에는 다음과 같은 몇개의 類派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規範論者(normative school)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言論의 自由나 法的 倫理的 규범문제를 다루고 國民의 알 권리, 매스미디어의 情報에의 接近權, 커뮤니케이션의 秘匿權과 커뮤니케이션權을 다루고 近者에는 國家發展과 커뮤니케이션, 國際間 情報流通의 均衡問題를 다루는 領域이다.

둘째로 歷史學派(historical school)는 매스미디어 歷史를 우선은 編年史的으로 정리하는 作業을 초창기부터 활발하게 전개하여 新聞史·放送史등 미디어史를 정리하고 최근에는 汎 커뮤니케이션의 發達史를 지향하고 있다.

세째는 實證學派(empirical school)로서 이는 다시 社會學的 接近派 또는 巨視커뮤니케이션學派(soical communication approach or macro communication theorists)와 心理學的 接近派 또는 微視커뮤니케이션學派(psychological approach or micro communication theorists)로 나뉜다. 前者는 주로 社會調查方法(social survey research method)을 통하여 미디어 종사자와 커뮤니케이션 受容者의 意見, 態度, 접촉 및 受容行動 등을 연구하고 後者는 實驗을 통하여 Source, Message, Media, Audience의 變因의 統制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Effect를 연구한다.

現時點에서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의 現況을 全般的으로 照望컨대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과 문제점을 露呈한다.

韓國 커뮤니케이션研究는 끊임없이 研究對象의 擴大와 方法論의 精練化를 지향하여 왔다. 초기 매스미디어의 연구에서 여러 群小미디어의 研究, 메시지 중심의 研究에서 사람사이의 相互作用에 관한 研究로 研究對象이 擴張되었다. 研究方法은 주로 規範的(normative), 評價的(evaluative) 입장에서부터 考證·觀察을 중히 여기는 傾向으로, 內容分析의 方法에서 社會調查와 實驗方法으로, 質的 分析에서 量的 分析으로, 記述의 次元에서 檢證의 단계로, 個 變因研究에서 多變因研究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規範論의 分野나 歷史的 研究分野, 接近態度에서도 經驗的 論證과 事實的 背景을 증시하고 實證的 接近態度에서도 「人間」과 「狀況」의 因子를 증시하는 態度를 갖는 등 分野와 분

野間, 方法과 方法간의 相互 交流와 補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커뮤니케이션權을 論할 때도 「...하여야 한다(must do)」는 當爲論을 피하고 專門家나 大衆의 意識 속에 內在하는 意見事實을 實測하여 因子化하는 방식을 취한다.

1980년대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는 이제 「제 3의 局面」에 접어들어 微視的 接近과 巨視的 接近, 規範論과 實證論의 交叉와 補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분야로 歸因理論(Attribution Theory), 코오리엔테이션理論(Coorientation Theory)이 도입되어 각광을 받게 될 조짐이고,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론의 綜合的 體系化의 시도라 할 Cultivation 効果論, Agenda-Setting 効果의 研究가 활성화되고 있고, 發展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시들해진 反面 新國際情報秩序(NWIO)에 관한 論議가 활발하다.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理論들은 아직 概念導入과 試範研究의 段階에 있지만 보다 本格化되면서 80년대 커뮤니케이션研究分野를 풍성케 할 것이다.

韓國 커뮤니케이션研究는 20년간의 눈부신 發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數多하다. 이를 理論과 方法論, 研究의 問題意識과 應用力, 言論教育과의 關係의 눈으로 言及하여 보겠다.

먼저 커뮤니케이션研究가 獨立된 社會科學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獨自的 理論體系를 확립하지 못하고 隣接學問의 概念模型을 조립한 모자이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덧붙리 커뮤니케이션의 固有領域을 고집하여 隣接學問間的 연계를 외면할 수도 없으므로 獨自성과 함께 진정한 意味의 諸學問間 綜合的 接近方式(inter-disciplinary)이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문제는 「人間」과 「社會」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理論의 內部的으로 專門分野間 分業化는 물론 關聯諸學問分野에서의 參與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學問됨의 要請으로 經驗的 態度는 必然的이라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態度는 안 좋은 것이고 그것도 그 方法論의 限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요즘에는 實證的 方法論者들도 「人間」문제를 들고 나오고 「哲學」의 필요성을 말한다. 經驗的 方法의 動員과 同時에 人間的 眞實의 多次元性, 社會的 價値의 相對象을 포괄하는 方法的 有機化 體系가 요망된다.

이러한 學問內的 問題와 直結되는 것이지만 研究가 보다 다양해지고 方法論的 細練化와 함께 研究者의 視角과 問題意識이 보다 銳利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美國의 研究를 韓國에서 그대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 韓國 커뮤니케이션의 現實이다.

끝으로 產學協同의 當面課題로서 커뮤니케이션 研究가 專門言論人的 양성에 어떻게 기여하며 教育과 學問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學部를 통한 基礎教育의 方法과 內容, 大學院과 研究所를 통한 言論人 再教育의 效率化와 擴大 등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지난 20년간 韓國 커뮤니케이션學界를 회고컨대 幻兒・成長의 진통과 파란의 연속 속에서도 成年學史로서 아직 미숙의 잔재는 남아있으나 새로운 成熟에의 跳戰과 밝은 展望의 문턱에 서있다 아니할 수 없다.